**마하딧티경**

(Mahādiṭṭhi suttaṃ-With the Worst View-견해로 경, 상윳따니까야 S23.3.1.8, 전재성님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있을 때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탐착하여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키는가? '이 일곱 요소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무엇을 일곱 요소라고 하는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괴로움의 요소, 즐거움의 요소, 목숨의 요소이다. 이 일곱가지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누구든지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잘라도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고 오로지 그 칼이 일곱 요소 사이의 간극을 통과한 것 뿐이다.

또한 140만의 생류를 비롯해서 7백 다시 6백의 생류가 있고 5백 업류, 5업류, 3업류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의 완전한 업과 그 절반의 업이 있다. 62가지의 업도가 있고 62주기의 겁이 있고 6가지의 인종이 있고 8가지의 인간의 지위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사명외도가 있고 4천9백 종류의 출가자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이름을 지닌 나가족이 있다. 2천 가지의 감각능력이 있고 3천 가지의 지옥이 있고 36가지의 티끌세계가 있고 7가지의 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의 무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 마디의 모태가 있고 7가지 신들이 있고 7가지 인간들과 7가지 아귀 7가지의 호수 7가지의 매듭 7가지의 절벽 7백가지의 절벽이 있으며 7가지의 꿈 7백가지의 꿈이 있는데, 8백4십만 대우주기 사이에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운 자도 유전하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의 종극에 이른다.

내가 이러한 계행이나 금계나 고행이나 청정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고 이미 익은 업을 감내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없다. 나에게 부과된 윤회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끝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예를 들어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그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할 때까지 윤회한다' 라고."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우리들의 법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의지처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하신 뜻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수행승들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받아 지니겠습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물질이 있을 때에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탐착하여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킨다.

'이 일곱 요소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무엇을 일곱 요소라고 하는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괴로움의 요소, 즐거움의 요소, 목숨의 요소이다. 이 일곱가지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누구든지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잘라도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고 오로지 그 칼이 일곱 요소 사이의 간극을 통과한 것 뿐이다. 또한 140만의 생류를 비롯해서 7백 다시 6백의 생류가 있고 5백 업류, 5업류, 3업류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의 완전한 업과 그 절반의 업이 있다. 62가지의 업도가 있고 62주기의 겁이 있고 6가지의 인종이 있고 8가지의 인간의 지위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사명외도가 있고 4천9백 종류의 출가자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이름을 지닌 나가족이 있다. 2천 가지의 감각능력이 있고 3천 가지의 지옥이 있고 36가지의 티끌세계가 있고 7가지의 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의 무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 마디의 모태가 있고 7가지 신들이 있고 7가지 인간들과 7가지 아귀 7가지의 호수 7가지의 매듭 7가지의 절벽 7백가지의 절벽이 있으며 7가지의 꿈 7백가지의 꿈이 있는데, 8백4십만 대우주기 사이에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운 자도 유전하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의 종극에 이른다. 내가 이러한 계행이나 금계나 고행이나 청정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고 이미 익은 업을 감내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없다. 나에게 부과된 윤회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끝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예를 들어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그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할 때까지 윤회한다' 라고.

수행승들이여, 감수가 있을 때에 감수에 집착하고 감수에 탐착하여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킨다.

'이 일곱 요소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무엇을 일곱 요소라고 하는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괴로움의 요소, 즐거움의 요소, 목숨의 요소이다. 이 일곱가지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누구든지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잘라도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고 오로지 그 칼이 일곱 요소 사이의 간극을 통과한 것 뿐이다. 또한 140만의 생류를 비롯해서 7백 다시 6백의 생류가 있고 5백 업류, 5업류, 3업류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의 완전한 업과 그 절반의 업이 있다. 62가지의 업도가 있고 62주기의 겁이 있고 6가지의 인종이 있고 8가지의 인간의 지위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사명외도가 있고 4천9백 종류의 출가자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이름을 지닌 나가족이 있다. 2천 가지의 감각능력이 있고 3천 가지의 지옥이 있고 36가지의 티끌세계가 있고 7가지의 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의 무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 마디의 모태가 있고 7가지 신들이 있고 7가지 인간들과 7가지 아귀 7가지의 호수 7가지의 매듭 7가지의 절벽 7백가지의 절벽이 있으며 7가지의 꿈 7백가지의 꿈이 있는데, 8백4십만 대우주기 사이에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운 자도 유전하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의 종극에 이른다. 내가 이러한 계행이나 금계나 고행이나 청정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고 이미 익은 업을 감내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없다. 나에게 부과된 윤회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끝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예를 들어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그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할 때까지 윤회한다' 라고.

수행승들이여, 지각이 있을 때에 지각에 집착하고 지각에 탐착하여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킨다.

'이 일곱 요소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무엇을 일곱 요소라고 하는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괴로움의 요소, 즐거움의 요소, 목숨의 요소이다. 이 일곱가지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누구든지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잘라도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고 오로지 그 칼이 일곱 요소 사이의 간극을 통과한 것 뿐이다. 또한 140만의 생류를 비롯해서 7백 다시 6백의 생류가 있고 5백 업류, 5업류, 3업류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의 완전한 업과 그 절반의 업이 있다. 62가지의 업도가 있고 62주기의 겁이 있고 6가지의 인종이 있고 8가지의 인간의 지위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사명외도가 있고 4천9백 종류의 출가자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이름을 지닌 나가족이 있다. 2천 가지의 감각능력이 있고 3천 가지의 지옥이 있고 36가지의 티끌세계가 있고 7가지의 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의 무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 마디의 모태가 있고 7가지 신들이 있고 7가지 인간들과 7가지 아귀 7가지의 호수 7가지의 매듭 7가지의 절벽 7백가지의 절벽이 있으며 7가지의 꿈 7백가지의 꿈이 있는데, 8백4십만 대우주기 사이에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운 자도 유전하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의 종극에 이른다. 내가 이러한 계행이나 금계나 고행이나 청정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고 이미 익은 업을 감내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없다. 나에게 부과된 윤회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끝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예를 들어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그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할 때까지 윤회한다' 라고.

수행승들이여, 형성이 있을 때에 형성에 집착하고 형성에 탐착하여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킨다.

'이 일곱 요소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무엇을 일곱 요소라고 하는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괴로움의 요소, 즐거움의 요소, 목숨의 요소이다. 이 일곱가지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누구든지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잘라도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고 오로지 그 칼이 일곱 요소 사이의 간극을 통과한 것 뿐이다. 또한 140만의 생류를 비롯해서 7백 다시 6백의 생류가 있고 5백 업류, 5업류, 3업류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의 완전한 업과 그 절반의 업이 있다. 62가지의 업도가 있고 62주기의 겁이 있고 6가지의 인종이 있고 8가지의 인간의 지위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사명외도가 있고 4천9백 종류의 출가자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이름을 지닌 나가족이 있다. 2천 가지의 감각능력이 있고 3천 가지의 지옥이 있고 36가지의 티끌세계가 있고 7가지의 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의 무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 마디의 모태가 있고 7가지 신들이 있고 7가지 인간들과 7가지 아귀 7가지의 호수 7가지의 매듭 7가지의 절벽 7백가지의 절벽이 있으며 7가지의 꿈 7백가지의 꿈이 있는데, 8백4십만 대우주기 사이에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운 자도 유전하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의 종극에 이른다. 내가 이러한 계행이나 금계나 고행이나 청정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고 이미 익은 업을 감내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없다. 나에게 부과된 윤회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끝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예를 들어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그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할 때까지 윤회한다' 라고.

수행승들이여, 의식이 있을 때에 의식에 집착하고 의식에 탐착하여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킨다.

'이 일곱 요소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무엇을 일곱 요소라고 하는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괴로움의 요소, 즐거움의 요소, 목숨의 요소이다. 이 일곱가지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누구든지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잘라도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고 오로지 그 칼이 일곱 요소 사이의 간극을 통과한 것 뿐이다. 또한 140만의 생류를 비롯해서 7백 다시 6백의 생류가 있고 5백 업류, 5업류, 3업류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의 완전한 업과 그 절반의 업이 있다. 62가지의 업도가 있고 62주기의 겁이 있고 6가지의 인종이 있고 8가지의 인간의 지위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사명외도가 있고 4천9백 종류의 출가자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이름을 지닌 나가족이 있다. 2천 가지의 감각능력이 있고 3천 가지의 지옥이 있고 36가지의 티끌세계가 있고 7가지의 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의 무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 마디의 모태가 있고 7가지 신들이 있고 7가지 인간들과 7가지 아귀 7가지의 호수 7가지의 매듭 7가지의 절벽 7백가지의 절벽이 있으며 7가지의 꿈 7백가지의 꿈이 있는데, 8백4십만 대우주기 사이에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운 자도 유전하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의 종극에 이른다. 내가 이러한 계행이나 금계나 고행이나 청정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고 이미 익은 업을 감내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없다. 나에게 부과된 윤회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끝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예를 들어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그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할 때까지 윤회한다' 라고."

[세존]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이나 감수나 지각이나 형성이나 의식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세존]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

"그런데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에 집착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일곱 요소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무엇을 일곱 요소라고 하는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괴로움의 요소, 즐거움의 요소, 목숨의 요소이다. 이 일곱가지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누구든지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잘라도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고 오로지 그 칼이 일곱 요소 사이의 간극을 통과한 것 뿐이다. 또한 140만의 생류를 비롯해서 7백 다시 6백의 생류가 있고 5백 업류, 5업류, 3업류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의 완전한 업과 그 절반의 업이 있다. 62가지의 업도가 있고 62주기의 겁이 있고 6가지의 인종이 있고 8가지의 인간의 지위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사명외도가 있고 4천9백 종류의 출가자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이름을 지닌 나가족이 있다. 2천 가지의 감각능력이 있고 3천 가지의 지옥이 있고 36가지의 티끌세계가 있고 7가지의 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의 무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 마디의 모태가 있고 7가지 신들이 있고 7가지 인간들과 7가지 아귀 7가지의 호수 7가지의 매듭 7가지의 절벽 7백가지의 절벽이 있으며 7가지의 꿈 7백가지의 꿈이 있는데, 8백4십만 대우주기 사이에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운 자도 유전하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의 종극에 이른다. 내가 이러한 계행이나 금계나 고행이나 청정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고 이미 익은 업을 감내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없다. 나에게 부과된 윤회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끝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예를 들어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그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할 때까지 윤회한다' 라는 견해를 일으킬 수 있는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

"이러한 견해, 학식, 추론, 지식, 결론, 탐구, 마음의 숙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세존]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

"그런데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에 집착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일곱 요소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무엇을 일곱 요소라고 하는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괴로움의 요소, 즐거움의 요소, 목숨의 요소이다. 이 일곱가지는 만든 것이나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거나 창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생겨나지 않았으나 견고해서 석녀와 같고 산봉우리와 같이 서 있고 기둥처럼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핍박하지 않는다. 서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조금도 없다. 누구든지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잘라도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고 오로지 그 칼이 일곱 요소 사이의 간극을 통과한 것 뿐이다. 또한 140만의 생류를 비롯해서 7백 다시 6백의 생류가 있고 5백 업류, 5업류, 3업류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의 완전한 업과 그 절반의 업이 있다. 62가지의 업도가 있고 62주기의 겁이 있고 6가지의 인종이 있고 8가지의 인간의 지위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사명외도가 있고 4천9백 종류의 출가자가 있고 4천9백종류의 이름을 지닌 나가족이 있다. 2천 가지의 감각능력이 있고 3천 가지의 지옥이 있고 36가지의 티끌세계가 있고 7가지의 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의 무의식의 모태가 있고 7가지 마디의 모태가 있고 7가지 신들이 있고 7가지 인간들과 7가지 아귀 7가지의 호수 7가지의 매듭 7가지의 절벽 7백가지의 절벽이 있으며 7가지의 꿈 7백가지의 꿈이 있는데, 8백4십만 대우주기 사이에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운 자도 유전하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의 종극에 이른다. 내가 이러한 계행이나 금계나 고행이나 청정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고 이미 익은 업을 감내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없다. 나에게 부과된 윤회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끝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예를 들어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그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할 때까지 윤회한다' 라는 견해를 일으킬 수 있는가?"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잘 배운 고귀한 제자가 이와 같이 여섯 가지 경우에 대한 의혹을 끊고, 괴로움에 대한 의혹도 끊고, 괴로움의 생성에 대한 의혹도 끊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의혹도 끊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의혹도 끊으면, 수행승들이여, 그 고귀한 제자는 물러서지 않고 단연코 올바른 깨달음을 궁극으로 삼는 진리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린다."

註.

**- 빠꾸다 깟짜야나(pakudha kaccayana) :**

절대적인 도덕부정론을 주장한 그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가택을 침입하고 노략질하고 타인의 처를 겁탈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물론적으로 7요소설을 주장했는데,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유물론자들과는 다른 이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빠꾸다가 인정하는 영혼은 물질적인 것으로 지극히 유물론적이다.

이들 7요소는 불생산이며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서로 인과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거기서 또한 그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토대 위에 '만약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잘라도 아무도 누구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며 단지 7요소 사이를 따라 칼이 통과한 것 뿐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진아(眞我)의 불괴성과 불변성을 주장하는 초기 베단따적인 우빠니샤드의 영원주의(常住論)에 영향을 받은 허무주의이다.

Suttantapiṭake  
Saṃyuttanikāyo  
Tatiyo bhāgo  
Khandhakavaggo  
3. Diṭṭhisaṃyuttaṃ  
1. Sotāpatti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hassa

3. 1. 8.

Mahādiṭṭhi suttaṃ

213. Sāvatthiyaṃ:

Kismiṃ nu kho bhikkhave sati kiṃ upādāya kiṃ abhinivissa evaṃ diṭṭhi uppajjati? Sattime kāyā akaṭā akaṭavidhā animmitā animmātā1vañjhā kūṭaṭṭhā phasikaṭṭāyiṭṭhitā, te na iñjanti na viparinamanti na aññamaññaṃ khyākhādhenti, nālaṃ aññamaññassa sukhāya vā dukkhāya vā, sukhadukkhāya vā:

-----------------------

1. "Animmitavidhā" - syā. "Animmitabbā tipipāṭho2-" saṃ - a:

[BJT Page 398] [\x 398/]

Katame satta: paṭhavikāyo āpokāyo tejokāyo vāyokāyo sukhe dukkhe jīve. Sattime kāyā akaṭā akaṭavidhā animmitā animmātā vañjhā kūṭaṭṭhā esikaṭṭhāyiṭṭhitā, te na iñjanti na viparinamanti na aññamaññaṃ khyābādhenti1nālaṃ aññamaññassa sukhāya vā dukkhāya vā sukhadukkhāya vā. Yo'pi tiṇhena satthena sīsaṃ jindati na koci kañci jīvitā voropeti. Sattannaṃ tveva kāyānamantarena satthaṃ vivaramanupavisati.

Cuddasa kho pana imāni yonippamukhasatasahassāni saṭṭhi ca satāni cha ca satāni pañca ca kammuno satāni ca pañca ca kammāni, tīṇi ca kammāni, kamme ca aḍḍhakamme ca dvaṭṭhipaṭipadā dvaṭṭhantarakappā, chaḷabhijātiyo aṭṭha purisabhumiyo ekūnapaññāsa ājivasate ekūnapaññāsa paribbājakasate ekūnapaññāsa nāgāvāsasate2- vīse indriyasate tiṃse nirayasate chattiṃsa rajodhātuyo satta saññigabbhā satta asaññīgabbhā sattanigaṇḍhigabbhā satta [PTS Page 212] [\q 212/] dibbā satta mānusā satta pisācā3 satta sarā satta pavudhā4 satta ca pavudhasatāni satta papātā satta ca papātasatāni satta supinā satta ca supinasatāni cullāsīti mahākappuno5satasahassāni yāni6 bāle ca paṇḍite ca sandhāvitvā saṃsaritvā dukkhassantaṃ karissanti.

Tattha natthi: "imināhaṃ sīlena vā vatena vā tapena vā brahmacariyena vā aparipakkaṃ vā kammaṃ paripācessāmi paripakkaṃ vā kammaṃ phussa phussa khyantīkarissāmī"ti hevaṃ natthi doṇamite sukhadukkhe. Pariyantakaṭe 7saṃsāre. Natthi hāyanavaḍḍhane. Natthi ukkaṃsāvakaṃse. Seyyathāpi nāma suttaguḷe khitte nibabeṭhiyamānameva paleti, evameva bāle ca paṇḍite ca nibbeṭhiyamānā sukhadukkhaṃ palentīti.

Bhagavammūlakā no bhante, dhammā bhagavaṃnettikā bhagavampaṭisaraṇā. Sādhu vata bhante, bhagavantaṃyeva paṭibhātu etassa bhāsitassa attho, bhagavato sutvā bhikkhū dhāressanti.

Rūpe kho bhikkhave, sati rūpaṃ upādāya rūpaṃ abhinivissa evaṃ diṭṭhi uppajjati: "sattime kāyā akaṭā akaṭavidhā animmitā animmātā vañjhā kūṭaṭṭhā esikaṭṭhāyiṭṭhitā, te na iñjanti na viparinamanti na aññamaññaṃ khyābādhenti1- nālaṃ aññamaññassa sukhāya vā dukkhāya vā sukhadukkhaṃ palentīti. Vedanayā sati vedanāya upādāya vedanāya abhinivissa evaṃ diṭṭhi uppajjati: saññāya sati saññāya upādāya saññāya abhinivissa evaṃ diṭṭhi uppajjati: saṃkhāresu sati saṃkhāresu upādāya saṃkhāresu abhinivissa evaṃ diṭṭhi uppajjati:" viññāṇe sati viññāṇaṃ upādāya viññāṇaṃ abhinivissa evaṃ diṭṭhi uppajjati:"sattime kāyā akaṭā akaṭavidhā animmitā animmātā vañjhā kūṭaṭṭhā esikaṭṭhāyiṭṭhitā, te na iñjanti na viparinamanti na aññamaññaṃ khyābādhenti1- nālaṃ aññamaññassa sukhāya vā dukkhāya vā sukhadukkhāṃ palentīti.

Taṃ kiṃ maññatha bhikkhave, rūpaṃ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Aniccaṃ bhante,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ā taṃ sukhaṃ vāti?

Dukkhaṃ bhante,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iparināmadhammaṃ api nu taṃ anupādāya evaṃ diṭṭhi uppajjeyya: "sattime kāyā akaṭā akaṭavidhā animmitā animmātā vañjhā kūṭaṭṭhā esikaṭṭhāyiṭṭhitā, te na iñjanti na viparinamanti na aññamaññaṃ khyābādhenti1- nālaṃ aññamaññassa sukhāya vā dukkhāya vā sukhadukkhāṃ palentīti.

No hetaṃ bhante,

Vedanā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Saññā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Saṃkhārā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Viññāṇaṃ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Yampidaṃ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 tampi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Aniccaṃ bhante,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ā taṃ sukhaṃ vāti?

Dukkhaṃ bhante,

--------------------

1. "Khyādhentī" - syā.   2. "Nāgavāsasate" - machasaṃ. Syā   3. Pesāvā - sīmu, machasaṃ   4. Pavuṭā - machasaṃ, syā   Pamuṭā - sīmu. Si 1. Pabuṭā - dīghanikāya   5. "Mahākappino" - syā, machasaṃ.   6. "Yāni" ūnaṃ - sī 1, 2.   7. "Kate" - syā, machasaṃ.

[BJT Page 400] [\x 400/]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iparināmadhammaṃ api nu taṃ anupādāya evaṃ diṭṭhi uppajjeyya: "sattime kāyā akaṭā akaṭavidhā animmitā animmātā vañjhā kūṭaṭṭhā esikaṭṭhāyiṭṭhitā, te na iñjanti na viparinamanti na aññamaññaṃ khyābādhenti1- nālaṃ aññamaññassa sukhāya vā dukkhāya vā sukhadukkhā vā, katame satta: paṭhavikāyo āpokāyo tejokāyo vāyokāyo sukhe dukkhe jive sattime kāyā akaṭā akaṭavidhā animmitā animmātā vañjhā kūṭaṭṭhā esikaṭṭhāyiṭṭhitā, te na iñjanti, na viparinamanti, na aññamaññaṃ khyābādhenti, nālaṃ aññamaññassa sukhāya vā dukkhāya vā sukhadukkhāya vā. Yopi tiṇhena satthena sīsaṃ jindati, na koci kañci jīvitā voropeti, sattannaṃtveva kāyānamantarena satthaṃ vivaramanupavisati.

Cuddasa kho panimāni yonippamukhasatasahassāni saṭṭhi ca satāni cha ca satāni pañca ca kammuno satāni ca pañca ca kammāni, tīṇi ca kammāni, kamme ca aḍḍhakamme ca dvaṭṭhipaṭipadā dvaṭṭhantarakappā, chaḷabhijātiyo aṭṭha purisabhumiyo, ekūnapaññāsa ājīvasate , paribbājakasate, ekūnapaññāsa nāgāvāsasate vīse indriyasate tiṃse nirayasate chattiṃsa rajodhātuyo sattasaññīgabbhā satta asaññīgabbhā satta nigaṇḍhigabbhā satta dibbā satta mānusā, satta pisācā, satta sarā, satta pavudhā, satta ca pavudhasatāni, satta papātā satta ca papātasatāni, satta supinā, satta ca supinasatāni cullāsīti mahākappuno satasahassāni. Yāni bāle ca paṇḍite ca sandhāvitvā dukkhassantaṃ karissanti. Tattha natthi: "imināhaṃ sīlena vā vatena vā tapena vā brahmacariyena vā aparipakkaṃ vā kammaṃ paripācessāmi, paripakkaṃ vā kammaṃ phussa phussa khyantīkarissāmī"ti hevaṃ natthi doṇamite sukhadukkhe pariyantakaṭe saṃsāre natthi hāyanavaḍḍhane natthi ukkaṃsāvakaṃse, seyyathā'pi nāma suttaguḷe khitte nibbeṭhiyamānameva paleti, evameva bāle ca paṇḍite ca nibbeṭhiyamānā sukhadukkhaṃ palentī"ti.

[PTS Page 213] [\q 213/]

No hetaṃ bhante,

Vedanā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Saññā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Saṃkhārā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Viññāṇaṃ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Yampidaṃ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 tampi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Aniccaṃ bhante,

Yaṃ panāniccaṃ dukkhaṃ vā taṃ sukhaṃ vāti?

Dukkhaṃ bhante,

Dukkhaṃ viparināmadhammaṃ api nu taṃ anupādāya evaṃ diṭṭhi uppajjeyya: "satti'me kāyā akaṭā akaṭavidhā animmitā animmātā vañjhā kūṭaṭṭhā esikaṭṭhāyiṭṭhitā, te na iñjanti, na viparinamanti, na aññamaññaṃ khyābādhenti, nālaṃ aññamaññassa sukhāya vā dukkhāya vā sukhadukkhāya vā, katame satta: paṭhavikāyo āpokāyo tejokāyo vāyokāyo sukhe dukkhe jive. Satti'me kāyā akaṭā akaṭavidhā animmitā animmātā vañjhā

[BJT Page 402] [\x 402/]

Kūṭaṭṭhā esikaṭṭhāyiṭṭhitā, te na iñjanti, na viparinamanti, na aññamaññaṃ khyābādhenti, nālaṃ aññamaññassa sukhāya vā dukkhāya vā sukhadukkhāya vā yo'pi tiṇhena satthena sīsaṃ jindati, na koci kañci jīvitā voropeti. Sattannaṃtveva kāyānamantarena satthaṃ vivaramanupavisati.

Cuddasa kho pana imāni yonippamukhasatasahassāni saṭṭhi ca satāni cha ca satāni pañca ca kammuno satāni pañca ca kammāni, tīṇi ca kammāni, kamme ca aḍḍhakamme ca dvaṭṭhipaṭipadā dvaṭṭhantarakappā, chaḷabhijātiyo aṭṭha purisabhumiyo ekūnapaññāsa ājivasate ekūnapaññāsa paribbājakasate, ekūnapaññāsa nāgāvāsasate vīse indriya sate tiṃse nirayasate chattiṃsa rajodhātuyo satta saññigabbhā satta asaññigabbhā satta nigaṇḍhigabbhā satta dibbā satta mānusā, satta pisācā. Satta sarā satta pavudhā, satta ca pavudhasatāni satta papātā satta ca papātasatāni satta supinā satta ca supinasatāni cullāsīti mahākappuno satasahassāni yāni bāle ca paṇḍite ca sandhāvitvā dukkhassantaṃ karissanti.

Tattha natthi: "imināhaṃ sīlena vā vatena vā tapena vā brahmacariyena vā aparipakkaṃ vā kammaṃ paripācessāmi, paripakkaṃ vā kammaṃ phussa phussa khyantīkarissāmī"ti hevaṃ natthi doṇamite sukhadukkhe pariyantakaṭe saṃsāre natthi hāyanavaḍḍhane natthi ukkaṃsāvakaṃse, seyyathā'pi nāma suttaguḷe khitte nibabeṭhiyamānameva paleti, evameva bāle ca paṇḍite ca nibbeṭhiyamānā sukhadukkhaṃ palentīti?

No hetaṃ bhante,

Yato kho bhikkhave, ariyasāvakassa imesu chasu ṭhānesu kaṃkhā pahīnā hoti. Dukkhe'pissa kaṃkhā pahīnā hoti, dukkhasamudayepissa kaṃkhā pahīnā hoti, dukkhanirodhepissa kaṃkhā pahīnā hoti, dukkhanirodhagāminiyā paṭipadāyapissa kaṃkhā pahīnā hoti. Ayaṃ vuccati bhikkhave, ariyasāvako sotāpanno avinipātadhammo niyato sambodhiparāyanoti.

Sutta Pitaka  
Saṃyutta Nikāya  
Division III - Khandhaka  
Book 23 - Diṭṭhi Saṃyutta   
Chapter 1 - Sotāpatti (Paṭhamo) Vagg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hassa

23. 1. 8.

(8) [Mahā] Diṭṭthena - With the Worst View

1.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was living in the monastery offered by Anāthapiṇḍika in Jeta's grove in Sāvatthi.

2. The Blessed One addressed the monks from there: “Monks, conscious of what, grasping and settling in what, arise the view, `These seven are the bodies which are brought about by natural means, not created by some creator, sterile, and not the result of cause; they stand like pillars, unmoved, not suitable enough to disturb the pleasantness and unpleasantness of each other'?

3. “ `What seven? They are the bodies of earth, water, fire, air, pleasantness, unpleasantness, and life. These seven are the bodies which are brought about by natural means, not created by some creator, sterile and not the result of causes, they stand like pillars, unmoved, not suitable enough to disturb the pleasantness or unpleasantness or pleasant and unpleasant nature of each other.

4. “ `If someone were to cut the head with a sharp weapon, by that no life was destroyed. The weapon entered through a slit putting apart the seven bodies.

5. “ `There are fourteen hundred thousand and sixty-six hundred important births to go through in existences with five hundred actions, five actions, three actions, one action, and half an action following eight methods twice, for sixteen forward world cycles, born in the six mental faculties, going through the eight stages of the life of a prophet. Born four thousand, nine hundred times in each of the following, living a peculiar life, living the lives of mendicants and as venomous snakes. A hundred times with mental faculties, three thousand times gone astray, thirty-six times in space, in seven perceptive wombs, in seven non-perceptive wombs, in seven wombs without ties, seven times in heaven, seven times as humans, seven times as demons, seven times with perception, seven times as a block, experiencing seven hundred downfalls and seven hundred and seven visions throughout eighty small and large world cycles, born as hundred thousands of fools and wise they make an end of unpleasantness.

6. “ `Here it is not possible to get maturity for immature actions or feel and finish off the mature actions by virtues, observances, austerities, or leading a holy life. For the limited measured pleasant and unpleasant feelings in existences there is no decrease or increase, no excellence or inferiority.

7. “ `Like one thrown into a ball of thread, would have to find his way out, in the same manner the fools and the wise have to go through pleasantness and unpleasantness and find their way out'?

8. “Venerable sir, the Blessed One is the leader for the Teaching, hearing it from the Blessed One the monks will bear it in mind.”

“Then monks, listen carefully, I will tell you.

9. “Monks, conscious of matter, grasping and settling in matter, arises the view, `These seven are the bodies ... re ... find their way out'.

10-16. Monks, conscious of feelings, grasping and settling in feelings, arises the view, ``These seven are the bodies ... re ... find their way out'.

17-22. Monks, conscious of perceptions, grasping and settling in perceptions, arises the view, `These seven are the bodies ... re ... find their way out'.

23-28. Monks, conscious of intentions, grasping and settling in intentions, arises the view, `These seven are the bodies ... re ... find their way out'.

29-34. Monks, with consciousness, grasping and settling in consciousness, arises the view, `These seven are the bodies ... re ... find their way out'.

35-40. Monks, are matter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permanent or impermanent?”

“Venerable sir, they are impermanent.”

“Those which are impermanent, are they unpleasant or pleasant?”

“Venerable sir, they are unpleasant.”

“Adhering that they are impermanent, unpleasant, changing, would the view arise, `These seven are the bodies ... re ... find their way out'?”

41-46. Monks, are whatever seen, heard, sensed, cognized, achieved and pursued by the mind permanent or impermanent?”

“Venerable sir, they are impermanent.”

“Those which are impermanent, are they unpleasant or pleasant?”

“Venerable sir, they are unpleasant.”

“Adhering they are impermanent, unpleasant, changing would the view arise, `These seven are the bodies ... re ... find their way out'?”.

“That is not so, venerable sir.”

47. “Monks, when the learned noble disciple has dispelled doubts in these six instances, his doubts about unpleasantness, its arising, ceasing, and the method for the ceasing of unpleasantness too are dispelled. Monks, to this is said the noble disciple has entered the stream of the Teaching. He would not fall from there and his single aim would be enlightenment.”